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論說

原稿料問題

一

向者에文藝家協會의發起됨이잇서서 그들이原稿料의最低額을作定하고저할때에 우리는그러한運動이이러날必然性을看取하고 또그들의主張이正當하다는것도認定하엿섯다 肉體的勞動에從事하거나 精神的勞働에從事하거나를勿論하고 生活의資料를 그勤勞에依하야 取得하는사람은 다勞働者로볼수잇는것이니 그들이서로團合하야 그利益을擁護하려고하는것은當然하다고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二

그럼으로 우리는文藝家協會가順當히發達되여가서 一般文筆에從事하는사람들로하여금漸次그러한自覺을가지게하는바잇기를 希望하엿섯다 그리하엿섯더니 文藝家協會에서는 今番에第一次的爭議를보게되엿스니 우리는이것을또한單純한勞動爭議로取扱하고一般勞働爭議와 區別하려고하지아니한다 文藝家協會의勞働爭議의對象은現代評論社이다 文藝家協會員의現代評論誌에投稿한創作一篇이印刷發表된後 當局의忌諱에觸한배되여 削除를當하엿섯다 그에對하야 原稿料를支拂하지아니함으로因하야兩機關사이에衝突을보게되여 여러가지로交涉이잇섯스나마는 畢竟決裂되고말엇다 우리는 지금이것을特別히兩機關에關한것으로만보지아니하고 一般的問題로하야 取扱하려고한다 押收當한글에對하야 原稿料를支拂하지아니하는것이 正當한가?正當하지아니한가를論하여보기로하자

三

그보담도더몬저 우리는原稿料를支拂할것인가?아닌가를생각하여보기로하자 現下朝鮮에잇서서 新聞에나雜誌에投稿하면 그에對하야原稿料가 規則的으로支拂되지못하는것은事實이다 그러나 어느新聞社에서나雜誌社에서 原稿料를支拂하는境遇가잇다면그名稱은『謝金』이거나『禮金』이거나 何如턴지 그勞務에對한報酬로볼수잇는것이다 그럼으로 그執筆者가 달은사람들이 報酬를밧는것을보고가서그것을『좀으게된다』면 그는발서好意的禮讓의關係를떠나서 債權債務의關係를成하는것이다 今番의問題되는境遇에잇서서 現代評論誌에投稿하면 報酬를바들이라는것은 投稿者들이大槪그와가티생각하고 또同社에서도그와가티實行해온것도事實이라고볼수잇는것이다 그럼으로同社에서는『謝金』이로던지『禮金』이로던지하는생각으로 實行하엿는지는알수업스나 表面上으로는報酬의性質을가진것으로볼수잇는것이엇다

四

그럼으로筆者가 自己의原稿採用됨을보고 그에對하야原稿料를請求하는것은 正當한權利라고볼수잇는것이다 그런데지금問題의境遇에잇서서 그글이削除되엿슴으로 報酬를支拂하지안켓다는것은 正當한主張이라고할수업다 一般的으로原稿料를支拂하는데 採用하야印刷成立한後에 當局의忌諱에觸하야削除當하엿다고 그에對하야原稿料를支拂하지안는다면 그結論이어데까지가야할런지알수업다 그러면 어느新聞社에서記者로서 어느記事나論文을쓴記者는 그것으로因하야 新聞이押收를當하고 그것이削除되엿다고하면 그新聞社에서는 그記者를免職식혀야 할것인가?그와가튼新聞社가잇섯다하면 社會의攻擊을밧게될것은 現下事情에잇서서明白한일이아닐가? 그글의採用與否는編輯者에게權限이잇는것인즉한번採用한以上에는 그에對하야 筆者의勞를謝하는것이 社의觀念上當然한것인줄안다 削除當한때에 筆者는『未安하오』할것이니 그에對하야經營者로서는『辛苦하엿소』하는것이當然할것이니 普通수어오던報酬를拒絕한다는것은 同意하기어려운主張이라고하지아니할수업다 그럼으로우리는今番의文藝家協會對現代評論社의爭議에잇서서 文藝家協會의主張을支持하려고한다

엘大學管理權 率先引渡決定

宗敎學校管理權을 國民政府管理聲明後

(紐育十八日發) 國民政府에서中國各處에잇는宗敎學校經營을中國人의管理下에두든지不然하면廢校하라는 布告가잇슨後시난十八日紐育에서『엘』大學의執行的管理權은中國人의手에移할것이라는信念上同校長『에드와드、喜一』氏는同理事會에辭表를提出하얏다 그런데『喜』氏는이와同時에聲明書를發하야日中國에在한大學에서從來基督敎徒가管理하여오든것가티管理權을中國人에게移하기로決하엿다고하엿더라

楊樹莊獨立宣言

艦隊를率하고吳淞沖으로出發

(上海十八日發) 吳淞에根據를둔楊樹莊은十八日左의獨立宣言을發한後艦隊를거느리고吳淞江밧그로나갓더라 余는國民軍의任命에依하야海軍總司令이되엇다 將來는國民軍과行動을共同히하야救國의任에當할터이다 楊의艦隊는海籌、海用、應瑞、通濟等四巡洋艦과永續、靖安、甘泉、湖州等砲艦及五水雷艇을有하엿…

相間에質疑應答이잇섯고正午에休憩하엿는바幣原外相은質問에對하야 『現行中國關稅從價五分稅率은現下事情에適應치안는點도잇고吾人이關稅會議에서差等稅率設定을交涉하엿스나動亂外닭에中絕形勢에잇다 그러나最後의目的은差等稅率을設하야日中經濟의發展에資할方針이다』라고答하얏더라

伊下院로約批准

(羅馬十七日發) 伊太利下院은十七日『로카루노』條約을批准하엿는데同條約은上院의協贊을得하엿더라

藏相告發理由

刑事不成立

條件內容이困難

(東京電) 震災手形法案에就하야貴族院各派는大槪一致하야旣報希望條件을提出하야政府의同意를得코저하는데政府의가장苦痛으로생각하는바는右希望中特殊銀行의別途救濟의點이政府의目的을水泡에歸케함에잇스며政府는研究會가各派와政府와의協定成立外지에態度決定을保留할…

震手案緩和努力

花柳病豫防案 委員會可決

差等稅率設定 最後目的

言論權威와 結社의自由

嚴肅丘整然하게열린 黃海道記者大會經過

旣報=黃海道記者團主催黃海道記者大會는去十五日十一時半부터載寧邑內東○○國內에서開催되엇는데道內各界聽衆五十餘名이모히어…

不良地農指導

技手配置

各省의復奮費

總額四十萬圓

光州女子高普

寄付金完納을기다려 設立認可를申請

平壤店員 相助組合祝賀

黃海道記者團 第二回定總

大會의뒤를니어

學生監禁眞狀

思想書籍購讀한

其他外數項調査를 記者團定總서決議

家庭用精米機丘發明

外七八種은特許提願中

發明의朝鮮으로趣하는喜消息

『우리의唯一한 進路는發明』

◇…金甲濟氏談

全南鐵道敷設

四社競願이든計劃은 不遠工事에着手

平高入學狀況

平電料金 減下認可

十燭光 七十三錢으로

故障만키로 有名한軌道

三道溝에 農民學院設立

間島物產品種

雄基金組事業

定平郡 春柳靑聯

十六日에創立

地方紹介今休

라듸오聽取會

本報支局主催

黃州에서

常務委員選定

信川溫泉에서

新聞講演

盛況인운

郡內蹴球大會

殷栗서開催

馬山倍達幼稚

入園志願遝至

莞島中學講習

學生募集規定

韓山苧布狀況

大歡迎門建築

十米突高의

日本郵船社司厨部員 一齊同盟罷業斷行

대우개선요구거절로파업결행 争議本部는神戶에

일본우선사주부 유지동우회(日本郵船司厨部有志同友會)에서는 대우개선(待遇改善)동 몃개조의 탄원서(嘆願書)를 본사에 뎨출하엿든바 중역회에서 거절한까닭에 전부하선(下船)하기로결의한후 다시 동우회대표는 십구일 오후에 본사를차저가 현재의고용계약(雇傭契約)을폐기(廢棄)한다는 결의문을권하고 쟁의본부를 신호에 두기로한후 십구일밤에 뎡상회장(井上會長)은신호로출발하엿더라 (동경뎐보)

뎡박중인 동회사 선박에대하야 일체 배에서 륙디로 나리라는 명령을 십팔일 오후열시에 각처에 뎐보한까닭에 십구일문사(門司)를떠나 뎡오에구주(歐洲)로 행할진명환(榛名丸)은 백칠십명의손님을 태운채 떠나지못하고 잇는데 그배에잇는 사주부원은 본부에서온 최후의 뎐보를밧고 동맹하선을 하려고 준비를뎡돈중인데 일방회사측에서는 사건이 중대함으로 뎡디지뎜장(背地支店長)은 대교선장(大校船長)을 방문후 문사에와잇는 재등상해지뎜장(齋藤上海支店長)과 회의를 거듭하는중인데 진명환야본사주장(野本司厨長)은말하되 교섭이쌔어젓스니 하선(下船)하라는명령이 본부에서왓스나 손님만히 실어노코 배에서나릴수도업슴으로 본부와 교섭중이외다 목하문사에는 『케노아환』이잇는바 가하환(加賀丸)박다환(博多丸)등이잇는바 권부행동을 가티할터인데 본부에서는 대총서긔(大塚書記)가 응원으로문사에와잇습니다운운하더라(문사뎐보)

各汽船 出帆停止

사주부동우회원의 하선으로도 십구일오컨십일시에 신호를 출범할예뎡이든 텬양환(天洋丸)과 은양환(銀洋丸)을 위시하야 각긔선은출항(出航)할수가업시되엿더라

榛名丸도中止

별항과가티 회사측에서는 전면거절을하는까닭에 사주부 유지동우회본부에서는일본각항구오

各勞働團體 積極援助計劃

본지부에당원파견원조

일본로동당(日本勞働黨)과로동련합회(勞農聯合會)에서는 금번사주파업을 덜더히 원조하고 국력지지할 목뎍으로 각본지부(本支部)에 당원을파견하야 원조를계획중이더라

日本海員組合 同情키로決定

일본해원조합(日本海員組合)은 금번 우선회사 사주부원총동맹파업에대하야 동정태도를취하기로결하고 알에와가티 성명서를발하엿더라

一、組合은同友會의議案에對하야中立態度를取함

二、欠員의補充에關하야는一切不干涉

三、賞與金問題에關한海員組合의態度는郵船會社의態度에依하야定함

◇平壤女高 入學狀況◇

평양녀자고등보통학교금춘신입생입학상황을 듯건대(지난사일까지입학시험종료) 지원자총수삼백이십팔인 (작년보다삼십칠인증가) 중입학된학생이일백오인인바그내역 평안남도 각공립보통학교로부터 오십칠인 사립학교이인 평안북도 각공립보통학교로부터 이십팔인 사립학교로부터 이인 황해도 각공립보통학교로부터 십삼인 사립학교일인 함경북도 일인 충청남도 일인 (평양)

無責任한 順川郵便局

서신이적다고 배달을등한이

평남순천군봉명면(平南順川郡鳳鳴面)은 본래개천(价川)우편국배달구역내 이던바 얼마전에는 권긔봉명면주민들이 당국에 진정한결과로 순천(順川)우편국구내로 편입하엿는데 그때부터 일삼오칠구로 이틀에한번식 배달하는 규정이잇는데 최근에 와서는사오일식 지톄하여 배달함으로 통신이실로 불편하야 주민들은 못업는고통을 하던끄테 순천우편국에 질문한즉 봉명면에는 배달할서신이 만치안흔 탓이라고 변명한다는데 봉명면민들은 다시개천구내로 편입하여 주기를 당국에 요구하리라더라(안주)

强盜二名突現

지난십오일 오후 다섯시경에 달성군 수성면 황청동사십육번디(達城郡壽城面黃青洞) 김녕끈 [illegible]

成果된螢雪功

◇學窓서나는秀才들

강희립

高工卒業生 시내고등공업학교(高等工業學校)에서는십구일졸업식을 거행하얏는데 금년졸업생은 이십사인으로 방직학과(紡織學科)에 삼명, 응용화학과(應用化學科)에 삼명, 토목학과(土木學科)에팔명, 건축학과(建築學科)에 사명, 광산학과(鑛山學科)에칠명, 선과수업자(選科修業者)가사명인바그중에 수석은 조선사람으로김해림(金海琳)군이라한다

김재도

普專卒業生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에서는십구일오컨열한시에졸업식을거행하얏는데졸업생중에우등생은법과에 김재도(金在道)군과김영래(金永來)군인데 김재도군은식산은행에취직케되엇고김영래군은상업은행에취직케되엇스며상과(商科)에는김명렬(金明哲)군으로법무국(法務局)에재근키로되엇다고

김명렬

김영래

格鬪後逮捕

(金倉洲)이가 대구에 [illegible] 현금칠십여원 [illegible] 권신여러곳에 상처를낸후 현금 얼마를강탈도주하엿다는흉보를 들은경관은 즉시범인탐색에 착수하엿스나 수범 김영휴(金永休)(三五)는 어데로도망하야 종적을 감추엇슴으로 이놀데포코저활동중이든바 마츰지난십칠일오후다섯시경에 권긔김영휴가 대구시내명치뎡이뎡목(大邱市內明治町二丁目)길거리에서 무엇을사먹으려고 배회함을발견한 경찰부형사가 즉시 길거리에서 데포하려고 대격투를한후 필경데포하야 청도경찰서로보내엇다더라(대구)

生路는安在? 오라가락白衣群

◇一月後流離同胞萬餘名 故國歸還又五千

[illegible] 북으로북으로서북간도(西北間島)디방에 이주하는조선인은본보에 그참상을매일보도하는바어니와 그들의대부분은 자본이라거나 청산도 업시 갈뿐아니라 그영의 사정(事情)을 알지못하고 그저정처업시헤매이다가 또다시로령(露領)방면으로 [illegible] 만여명에달하엿다는데 그들은또다시거긔에서 [illegible] 조선내디로돌아오는 사람이매일백여명에달한다는바 [illegible] 남부녀대 [illegible] 아모것도 [illegible]

蓮池洞事件 主犯은逮捕

삼년동안대수색하든끄테 哈爾賓日領警察官에

본적을경성부길야뎡(吉野町)길정목 십구번디에두고 주소부뎡인 리선진(李先鎭)一名李光[illegible](二六)은 대정십삼년칠월십삼일련지동(蓮池洞)사건을범행한이래 시국표방과 공갈및살인 미수죄등의 여러가지로경찰당국에서는이래 수색중이든바 얼마전에『할빈』일본총령사관경찰서원의손에데포되엇다는통첩이와 다더라

各地에出沒한 湯屋專門窃盜

지난달 이십사일 종로서(鍾路署)에데포된 시내례부동(禮府洞)진철수(陳哲洙)의 천김영자(金永子)(二四)와 그의 일을보는사람으로 전조선 각디로돌아다니며 목욕탕(湯屋)전문 절도질을하는 심년풍(沈年豐)(三六)김상옥(金相玉)(二七)에대한취됴는그피해디가 수원(水原) 대구(大邱) [illegible] 치원(致院)리리(裡里) 목포(木浦) 부산 [illegible]

維鳩堤坊潰手

[illegible]

載寧에强盜

[illegible]

差別은就職에尤甚

學生攻駁에先生逃避

조선인학생취직에만전심전력 醫專謝恩會場의風波

[illegible]

日學生全部就職

조선학생은자비게엽분

[illegible]

男妹共謀로 婦女를誘引

[illegible]

毛皮窃取犯

[illegible]

農會總代廿名選擧에 十九人은女子當選

부인참정권문데가놉하지는이때 일본각계급은홍미잇게본다고

日本初有의奇現象

부인참정권(婦人參政權)문데가 날로 심하여지는 일본 정계(政界)에잇서서이번에 촌농회총대(村農會總代)를개선함에당하야 당원이십명중 녀자측에서 십륙명을 내세워 남자와경쟁을하여옴으로 일본 각계급에서는 그결과에대하야다대한흥미를가지고오든바 산구현좌파군 유야촌(山口縣佐波郡柚野村)촌농회 총대 선거 (村農會總代選擧)는지난십칠일에투표하야십팔일에 개표한결과일반이 예상치못한조흔성적으로 최고 삼십팔표최하 이십표로써 의석(議席)열아홉을녀자가뎜령하고남자는겨우한사람이당선되어일본개국이래의귀현상을나타내엇다더라(하관뎐보)

『가티살게해주』

평북뎡주군안흥면호면동(平北定州郡安興面好峴洞)김경오(金敬五)의 둘재딸봉임(鳳姬)(二二)이가 동군옥천면문인동(玉泉面文仁洞)박정진(朴正珍)(二九)을 걸어변호사성기영(成夔永)씨를 소송대리로 신의주디방법원민사부에 부부동거 청구소송(夫婦同居請求訴訟)을 제긔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제원고 김봉임의 말을듯건대 얼마전에 남편 박정진이가 동군 읍내 유림강습소(儒林講習所)에 가서공부를하고잇는동시에 김봉임이가박정진에게 편지하기를 당신이다른녀자를 어더다하니 나는 혼자살수가업다고하얏던바그편지를바다본박정진은 사실이어떠한인지 의심이나서 빨리집으로 돌아와안해김봉임을보고 장내를 경계하여말하다를써지잇섯던바 그후 어느날밤에김봉임이가 의복과 기타그릇(器皿)동속을몰내훔쳐다가부근에사는 김복하(金福河)의 집 [illegible]

破船廿八隻 溺死者七名

손해는약칠만원가량 江陵墨湖風浪後報

지난팔일밤아홉시경에 강릉묵호진(墨湖津)에서는 청어(青魚)를잡으려 출범(出帆)하얏든 어선이 폭풍을 맛낫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관계당국자의 됴사한바에 의하면 피해(被害)상황는자세한것은아즉알수업스나 이써까지 판명된것만은 목포 중내(沖內)에서 만익사자와 행위불명자로 추뎡되는것이 칠명이요 발동선(發動船)한척과 어선이십칠척이파손(破損)되고어구(漁具)도죄지 안커류실(流失)되엇스며방파제(防波堤)귀손(潰損)십오간인데 이번 피해액이 약칠만여원에달한다는바 익사자로 추뎡(推定)되는어부동은알에와갓다고

原籍 三陟郡北三面松亭里　住所 江陵郡望祥面墨湖津里　木田米布方 林德守(四〇)

原籍 住所同上 金錫守(四〇)

江陵郡望祥面發翰里　住所 同 墨湖里野海和佐那郎方 姜春植(三九)

同上 姜勇熙(三四)

原籍 蔚珍郡箕城面邱山里　住所 江陵郡望祥面墨湖里 金錫山(二二)

原籍 江陵郡望祥面墨湖里 [illegible] 朴道明(四〇)

原籍 襄陽郡降峴面天津里　住所 江陵郡望祥面墨湖里 同 廉永周(二八) (江陵)

金化音樂講習

본보지국후원으로

지난십륙일 오후 일곱시반부터 [illegible] 이십일까지 일주일간을 김화청년회관안에서 음악 강습회를개최한바강사는 김정숙(金正中)양씨가추천되엇고 강습생은 삼십사명이 오입회금은삼십전이더라

團體消息欄

◇奬忠靑年定總 시내병목뎡(並木町) 이백오십오번디에잇는 정충청년회(奬忠靑年會)에서는그간사무가 침체중에잇든것을 다시정리키위하야 이십일 오후일곱시부터 제삼회 정긔총회를동회관에서개최한다고

◇京城無産靑年定期總會 경성부산청년회(京城無産靑年會)에서는 이십일하오칠시에 시내 [illegible] 동회관에 [illegible] 뎡긔총회를 개최하리라더라

非難만흔 朝鐵西咸興驛

조선텰도회사함흥선서함흥역(朝鮮鐵道咸興線西咸興驛)의발차시간(發車時間)의부주의와설비를 불완전으로 인하야 일반승객의 불평이 날로심하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요즈음 개혁이업슴은 아니라승객동의 취급을가리 취급한다는데 소위소장은 한나절이나되어 출근한다하며 역부들까지도 차시간이 한시간이상 두시간이 지나도그것을 등한시하고 저봉일만보고잇슴으로도 차타기를 기다리는만흔승객들은 안즐데도 업는좁은대합실에서 이리몰리고저리몰리며 서로밟는등 발부며불평의얼골을 찡그리는데 그뿐아니라전차보다도 적은긔차속에는 정원의십배이상을태워 긔차밧게까지 사람이 매여달려ㅅㅅ그위험한것은 더말할것도업고 승객이서로 싸우기까지하고 정거장에서미쳐나리지못하고떠나가다가다시 중도에서 정거를하고나리게하는등 여러가지의 무책임한비행는 일일히 잡을수업다하야 일반의불평이날로심하다더라

새벗社擴張

시내종로이정목사십이번디(市內鍾路二丁目四二番地)에잇는소년잡지새벗사에서는 이번에 모든사무를확장하야종래에 가티잇든편집부(編輯部)를 시내례부동칠번지(市內禮府洞七番地)에 따로두엇다고

映畵小說 白衣人 [四十四]

李慶孫 作

웃목에 웅크리고안진 긔영이는 잡지안의그림장을 뒤커거리며 쌔쌔로 알에목편을 엿보고잇다

형의누어잇는 목정은 자긔의 책상뒤집는 소리도 미안할만치 고요히텬장만치어다보고잇다

아침상이 나간지도 이미반시간이나 넘엇스니 이쌔는뒤어가야올터인데 엇재서출근을 아니하고 누어만잇는지 물어야며 답할사정도아닌듯하여서 자긔역가만히잇는터이다

이것이 오날처음이 아니라어쩌와 그적게도 이비슷하엿섯다 왜 아니가느냐고 물어보앗스나 시원스러히 대답치를안헛다 그대신이라는듯이

『너과자먹고 십지 안흐냐?』

하며 형은당치도안흔 질문을하엿다 그것은어적게 뎜심쌔의일이다자긔는 실타고하엿스나 형은 들은데만데하면서 지갑을쓰내다

『나도 먹을테니 사오너라』

삽십전을 쓰내어주는데 지갑안을들여다보니 돈이라고는 그뿐이엇섯다 자긔는형의 그음정이지금다시 되푸리하여도 엇전지슯흐엇다 형은지금 어머니생각을하는심인지 애닯는사랑을 품우며잇는지 신문사에 무슨조치못한일이 일어낫는지좌우간 그중에 하나이것가트나 자세히는알수업는일이다 이러케 안지엇스니 자긔역시동물원안의 코기리와가티갑갑하여진다

그리고 자긔에게는 오날도어쎄와가든 볼일이 잇다

『어듸 가니?』

일어스는 자긔를보며 형은오래 감만에 입을열엇다 그러나직업을구하라 다닌다고바른말을 할수는업섯다

『동무집이좀가요』

『응……』

긔영이는 창문밧게 나스면서가만히 중얼거리고 십헛다

『언니! 언니가나의 대답을 응!으로 그만둘 사람아닌것을알고잇스니 내마음이 더안되엇구려』

길에 나스니 봄은사방팔방에쌀리엇다『숏뻐려』장사의쇠마치소리에도 쌔뜻한봄의녀이 숨어잇다 느짓느짓 넘어가는구두마박회도 봄보벌과가티 쌍에서웰어지기를 실혀하며굴렀다 긔영이의피부(皮膚)안에서도 새빨간세포들이 두팔을 들면서만세! 를불른다마는 그것을 몰보고잇슬수업는 지금의 긔영이는풀이업다 풀이업시도 걸어간다

긔영이는 개청서 다시올라와가지고 려관에서 졸리는형을볼쌔에 자긔는 이가리직업을구하리라고결정하게된것이다 어린마음에 또다시는 학교생활을못하는구나 하고생각한다면 한편을칼에 잘리어 버리는니만치쓰릴것이다 마는 그래도그러치안흔것이 또한어린이의 마음이다그것은 운명압헤 굴복을하거나다시는 책과인연을 끈허도조타는것이아니다 더한층 자긔를강하게보며 모험을 품우는곳에그들의생활이잇다

『나는 엇더한직업에 붓던지독서할수가잇스며 훌륭히 될수가잇다 로서아의 『꼴기-』와가티……』

그래서 자긔는 벌서세번재시내티인쇄소 교정부의 조수(助手)니잡지사의급사의자리가자긔를기다리지는안헛노 월급은밥만먹으면조타고생각하는터인데도그러한자리는조선사람가나 일본사가디를 통털어도 업섯다

어케는 남대문밧 직업소개소를 갓더니 그곳에서외치는소리는 모도가 자긔의복음(福音)이 아니엇다

『입에맛는떡은 어려워! 네놈심에 달렷지 하필잡지사가아니면 공부가 아니되나?』

변소에가는 사무원을 잡고몰엇더니 그는그러한 련락을남기어노코 나가버렷나 그길로긔영이는 소개소를나와서 지금까지여러밧면으로 공상의 마차를과견시켜보앗다만 결국은 『입에맛는떡은 어려워』 가정말이엇다

『實習生採用!』(실습생채용) 이러한글자가 사흘재 헤매는긔영이의 옷자락을 잡아다닌다 그는발을 멈추며 그편을향하니 이곳은 양복뎜이다

실습생이면 이것은 일종의학생비슷한것이다 개청 자긔동리 『학선』이란 보통학교출신이 일금일백오십원을 가지고 서울가서 월사금을내면서 양복견습을 한다더니 넉달만에 아무것도아니라는 흔성을차고 돌아온것을 긔영이는 알고잇다

『무어요?』하며 주인이 뭇는다

『아니애요……』

긔영이는 다시돌아서서 걸어간다 걸어가라다가 무춧섯다 그러한글자가 또다시 자긔를잡은까닭이다

이곳에는 일본인의 국수집파 쇠고기장사가 함께 부터잇는데 바집인 모양이다

유리창안에는 쇠고기뭉치가 주황색 양복을입고 데롱매달려 잇다

그유리창에 써부친것이

『조선인 아동입용!』이란 흰종히다 그것을 일본말노부르는사면

『조센징 뉴-요-』늬한다

……金成蜜